

한국정치사와 구술사: 정치학을 위한 방법론적 탐색

이재성*

현대 정치학에서 역사적, 법적, 제도적 연구는 모두 '전통적 정치학'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사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사 연구는 정치학의 전통으로서 여전히 정치연구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통적 정치학의 오래된 관점과 방법론을 고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과거 정치사 연구의 한계와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제3장은 구술사의 개념과 연구사, 그리고 구술사를 둘러싼 가장 기본적인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최근 구술사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술사와 둘러싼 쟁점들은 매우 간단히 언급되고 있다. 특히 구술자료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구술성, 주관성, 부정확성, 대표성 등이 구별되지 못한 채, 그리고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간단히 처리되고 있다. 질적인 연구에서 연구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4장은 구술사 연구를 통해서 제기되는 '기억과 역사'에 대한 논의이다. 구술사는 비단 연구방법론에 그치는 논의가 아니다. 새로운 연구대상에 대한, 새로운 연구자료에 의한,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와 사회,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근거한 연구가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구술사적 연구이다.

제5장에서 말하는 '연결됨의 정치학'이란 분명 구술사 방법론과 구술자료의 특성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구술사 그리고 구술자료는 거시와 미시,

*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원이며 인천지역 노동사를 연구하고 있다. 계간 『작가들』에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문화적 기억'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eejss@hanmail.net

개인과 집단, 의식과 구조, 일상과 문화 등 다양한 연구쟁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의 정확한 자기인식 없이는 유의미한 구술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본 연구의 기본 입장이다.

주제어: 구술사, 구술성, 질적 연구 방법론, 집단적 기억, 구술전통, 구술증언

1. 역사와 정치

한국정치사 연구의 활성화가 한국정치학 발전의 대전제라는 사실에는 비교적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사는 가장 미발달된 분야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2000년 현재 한국정치학회 회원 중에서 한국정치사를 전공한 학자는 20명으로서 전체 1,700명 중 1.12%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국정치사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지형 역시 매우 협소한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선 정치사에 대한 연구사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정치사 연구의 방법론(구술사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것을 정치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당성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의 정치학은 소위 '전통적 접근방법'으로 불린다. 여기에는 역사적, 법적, 제도적 접근방법이 포함되는데 특히 역사적 연구가 중요했다. 당시에는 역사학과 정치학의 차이점은 거의 인식되지 않았으며, 정치학은 역사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었다. 이 시대 정치학자들의 격언은 "역사는 과거의 정치였고 정치는 현재의 역사이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학은 사실 정치사였고 이에 정당사, 외교사, 그리고 정치사상사와 같은 분야들이 강조되었다(아이작 1988, 51). 심지어 이 시대에는 "정치학을 강의하는 것은 역사학을 강의하는 것"이라든가 "정치학 없는 역사는 열매가 없고, 역사 없는 정치학은 뿌리가 없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었고, 이런 정신은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차기벽 1993, 16; 신복룡 2001, 158). 이 시기 학문의 역사에서 중요한 측면은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 각 인문사회과학의 분과들이 학문적 독립을 추구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역사주의(historicism) 또는 역사적 결정론은 사상사적으로 당대를 특징짓는 학문의 근대적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헤겔, 콩트, 맑스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주의적 흐름은 전통적 역사학으로부터 정치학과 사회학의 전문적 분화를 촉진시켰으며 이는 역사학에 대한 사회과학의 도전에 다름 아니었다. 한편 현대 사회과학적 전통의 모태로서의 역사학은 독일의 사학자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에 의해서 현대적 역사학, 즉 과학적 역사학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으로써, 현대적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역사학이 각각 독립적 학문 영역을 개척해가게 되었다. 역사주의는 계몽주의적 전통 속에서 이성의 법칙과 자유를 향한 역사의 단선적 진보를 주장했다. 이들에게서 독립적 학문이라 함은 '과학적 학문'을 의미했는데 '과학적 사회이론' 정립에 대해서 콩트나 맑스는 거의 다르지 않았다.

그후 실증주의가 역사주의 또는 역사적 결정론을 비판하는 점에서는 옳았다. 그러나 실증주의의 과도한 과학주의는 역사적 연구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이론의 과학화 경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제도가 아니라 행위를' 연구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역사적 방법 또는 역사주의를 과거의 사실과 전통만을 추종하는 낡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판하였다(Easton 1953, 235-236). 그러면 역사학계 내에서 정치사 연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날학과 제3세대의 중심적 인물로 활동했던 자크 르 고프(Jacque Le Goff)는 역사학계 내의 정치사 문제를 다루면서 "정치사는 그저 처치 곤란한 잡동사니에 불과했다. 한때 역사학의 중심권이었던 정치사가 이제는 역사학의 부수물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고프 1982, 168, 171). 또 홉스봄은 "과거에 대부분의 역사는 통치자의 영광 그리고 아마도 실용적 용도를 위해 저술되었다. 정말로 여전히 이러한 기능을 지닌 역사가 있다"며 역사학과 권력의 관계를 지적했다(홉스봄 2002, 324).

정치사(政治史)는 왜 정치학과 역사학 모두에게서 버림받게 되었을까? 19세기 말 까지도 여러 학문 분과의 어머니와도 같던 역사학이, 그리고 그 역사학에서도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던 정치사 연구가 왜 서서히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까지의 정치사,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국사(國史)와 민족사(民族史) 등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19세기까지

의 역사, 즉 정치사는 오직 왕조의 역사, 전쟁의 역사, 영웅의 역사, 승리자의 역사였다. 역사학에서 정치사가 비판받고 외면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전통적 정치사의 사관(史觀) 때문이다.

현대 역사학이 정치사를 중시하지 않았던 것은 실증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기보다 정치사 그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20세기 초에 마르크 블로크와 루시앵 페브르에 의해 창시된 ‘아날학파’와, 아날학파 2세대의 중심인물인 페르낭 브로델의 ‘거시 역사학’ 또는 사회사는 유럽의 새로운 역사학을 열었다. 또한 같은 시기 미국에서도 ‘새로운 역사학’의 기치 아래 제임스 로빈슨(James H. Robinson), 찰스 비어드(Charles Beard), 칼 베커(Carl Becker) 등이 지성사와 사회사라는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현대 역사학은 모두 정치사에 대한 반발로서 출현하였고, 정치사 속에서 잊혀졌던 하층 계급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곽차섭 2002, 471). 더 나아가 세계 역사학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역사학 비판 및 재구성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19세기 이후 정치사(政治史)는 실증주의의 영향력 아래서 정치학계의 관심사로 부터 멀어져갔다. 그리고 역사학계에서는 전통적 정치사의 낡은 사관(史觀)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사학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과연 정치사는 현대 인문사회과학에서 배제되어야 할 낡은 영역인가? 고프(Goff)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는 분명히 “낡은 정치사는 이제 소생 불가능한 시체와 같다”고 단정 짓는다. 동시에 “현재 정치사가 분명히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한 인문과학에서 정치적 측면과 접근방법이 점차 중요하기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낡은 정치사와는 달리 구조, 사회분석, 기호학과 권력의 연구에 의해 성립된 새로운 정치사”의 가능성을 말한다(고프 1982, 185-186). 홉스봄 역시 최근 정치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현대의 역사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접근함으로써 역사학 내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역사학의 혁명가들이 오랫동안 격하시켜 왔던 정치사를 다시 강조하는 운동의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홉스봄 2002, 113).

한국정치학도 근현대 정치학계의 흐름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왔다. 해방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의 ‘제1세대’ 한국정치학은 주로 법-제도적, 사상사적, 역사적 정치학이었다. 당시 정치학은 법학, 경제학, 역사학을 포함하는 일종의 종합

학과였다.¹⁾ 1960년대 후반까지의 '제2세대' 한국정치학은 주로 행태주의 정치학이었다.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에서 정치학을 배운 학자들에 의해서 현대적 정치학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전통적 정치학 연구는 퇴조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제3세대' 한국정치학은 후기 행태주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진보적인 정치경제학이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제4세대' 한국정치학은 '제3세대'의 경향을 이어가면서도 세계화, 정보화, 탈근대, 탈냉전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이정복 1999, 499-553).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정치사 연구는 주로 역사학계에 의존해 왔다. 한국정치사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 연구 자체가 한국정치학계에서 매우 미발달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손호철 1997, 15). 약 10년 전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전국 정치(외교)학과가 설치된 42개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오직 54.8% 만이 한국정치사가 설강(設講)되어 있으며, 실제 강의가 제공되는 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현재 한국정치학회 회원 1,700명중에서 스스로 한국정치사를 전공한다고 기록한 연구자는 20명(전체의 1.12%)에 불과했다. 다만 한국정치사상사, 한국정치론, 국제정치 등을 전공하면서 한국정치사 논저가 있는 연구자 등을 합치면 총 154명(전체의 8.60%)이 되지만, 결코 한국정치사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신복룡 2001, 205-207).

한국정치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커다란 이유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한국의 정치현실을 꼽는다. 독재정부와 분단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한국정치 연구는 매우 어려웠다. 좌익에 대한 연구는 금기 시 되었고,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탄압을 당했다. 무엇보다도 연구에 필요한 객관적 사료(史料)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행태주의 정치학의 영향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렇듯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한국정치사 연구 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1969년 한국정치학회는 『한국정치학회보』 제3집을 한국정치사 연구 특집호로 꾸며서 7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1) 해방정국에서는 국사학계의 사실상 선구자였던 이선근(李瑄根)이 서울대 정치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신복룡 2001, 174). 즉 당시엔 정치학 전공자가 부족하여 법학, 경제학, 역사학 전공자들이 정치학을 가르쳤다(이정복 1999, 499).

당시 민병태(閔丙台) 학회장은

종전까지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것을 연구해야 하겠다는 자세만을 강조했다 뿐 실증적 업적을 쌓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 본 회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학회도 아이덴티티를 찾게 됐고 우리가 지향하는 생산성 있는 정치사 구축에 대한 희망도 밝혀졌다고 보겠습니다.

라고 의미부여를 했다(민병태 1969, 6; 신복룡 2001, 183에서 재인용).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1999년에 한국정치학회는 ‘한국정치와 한국정치학의 반세기’를 기념하면서 “세기적 전환기의 한국정치학: 성찰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종 학술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정치학의 ‘한국화’, ‘자아준거적인’ 한국정치학,²⁾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정치이론 또는 정치사상의 부재 등의 평가가 반복되었다. 한국정치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한국정치학이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자신들의 정치상황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 발전해 온 서구의 정치학과 정치이론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진덕규 2000, 16). 한국정치학은 주체적인 기반의 결여로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정치학에서 가장 후진된 분야라는 한국정치론과 달리, 미국정치학에서 미국정치론은 가장 발전된 분야이고, 정치학의 전 분야가 미국정치론의 기반 위에서 발전되었다(이정복 1999, 565).

여전히 한국정치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역사학과 함께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역사학은 ‘사회사’ 등의 시도를 통해서 ‘사회과학적 역사학’을 시도하기도 했고, 정치학과 사회학에서도 역사정치학, 또는 정치사회학 등으로 ‘역사학적 사회과학’의 실험을 지속해왔다. 이미 두 역사학과 정치학은 활발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정치사 연구 역시 정치학과 역사학의 만남과 경쟁을 통해 발전될 것이다. 서로 다른 학제들은 “아마 효과적으로 분업하는 것이

2) 1979년 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문익승 교수는 ‘한국정치학이란 우리적 가치정향에 준거해서 우리적으로 인식, 설정된 문제의 우리적 해결을 추구함을 의미한다’며, ‘한국정치학을 미국정치학으로부터 구별지을 수 있는 근거는 (...) 한국정치학이 갖는 자아준거성’이라고 주장했다(문익승 1979, 11). 어떠한 개념을 사용하던지 한국정치 현실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필요성이 지난 반세기 한국정치학계 내에서 주장되어 왔던 것이다.

현명하겠지만 중복된다고 해서 해가 되는 것은 없다”(아이작 1988, 40). 한국정치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더욱 활발해져야 하며 애써 역사학과의 경계를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2. 구술사의 개념, 역사, 그리고 쟁점들

1) 구술사란 무엇인가?

구술사는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구술전기(oral biography), 생애사(life history), 생애 이야기(life story) 등의 다양한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된다. 이는 구술사라는 개념의 내포와 외연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구술사’라는 용어가 다른 개념들보다도 더 자주,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 구술사에 대한 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구술사: 구술전통(oral tradition)이나 구술증언(oral testimony)을 주된 사료(史料)로 활용하는 역사서술 또는 역사연구의 방법, 그 결과물, 그리고 학문분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

위 정의에서 등장하는 ‘구술전통’이란 여러 세대를 걸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과거의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묘사와 설명을 말한다. 이는 주로 문자가 없는 사회에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강하고 독특한 지적 전통을 지칭한다. 이와 달리 ‘구술증언’은 한 개인이 경험했던 과거의 특정 사건을 말을 통해 재현하는 것이다. 오늘날 구술사 연구의 대부분은 구술증언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서술 또는 역사연구를 의미한다.

‘북아메리카구술사협회’에 따르면, 구술사는 1948년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가 앨런 네빈스(Allan Nevins)가 미국인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회고담을 녹음하기 시작하면서, 역사적 자료구축의 현대적 기법에 하나로 정착되었다. 원래 클리블

렌드(G. Cleveland) 대통령의 전기 작가였던 네빈스는 대통령과 각료들에 대한 인터뷰가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들에 대한 문서를 찾으려는 연구 기관들은 많지만, 훨씬 최근의 인물들에 대한 생생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취득하려는 기관을 극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네빈스는 자신의 부자 친구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자신이 몸담고 있던 콜럼비아대학교에 '미국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150만 달러를 기부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중 3,000달러가 구술사 작업에 책정되었다(Dixon and Mink eds. 1967, 36-37). 이것이 현대 구술사연구의 출발점이었다.

2) 현대 구술사연구의 역사

1948년 이후 현대 구술사는 크게 네 세대로 구분될 수 있다(Dunaway 1998, 7-9). 구술사의 첫 번째 세대는 네빈스(Nevins), 루이스 스타(Louis Starr)로 대표된다. 이들은 구술사를 미래의 역사가들과 미래의 연구를 위해 현재의 '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수집하는 수단 또는 구술에 근거한 자서전 집필을 위한 도구 등으로 간주했다. 두 번째 세대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기본적인 문서보관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들은 구술사를 학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것 이상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구술사적 기법들을 비문자(nonliterate) 집단과 역사적으로 박탈당한 집단들에 대해 서술하고 지원하는 데에 사용했다. 1970년대 동안 구술사가들은 페미니스트, 사회활동가 등의 노력에 근거하여 소외집단의 지지를 획득했고 그러한 자신의 위상을 세웠다. 그들은 '문서보관소에 축적하기 위한 엘리트 중심의 인터뷰'였던 제1세대 구술사의 범위를 확장했다.

1979년은 구술사 연구사에 또다른 기점이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 유럽에서도 독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오던 구술사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각국에서 활동하던 구술사가들은 Essex 대학에서 열린 '국제구술사대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면서 현대 구술사의 고유한 특징들을 개발시키는 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세 번째 세대가 출현하였다. 이 세대는 제1세대의 보수적

구술사와 제2세대의 급진적 구술사로부터 모두 간과되었던, 구술사료편찬(oral historiography) 등을 배운 새로운 학생과 학자들이었다. 미국의 주요한 문서보관소들은 컴퓨터 등의 기술발전에 발맞추어 구술자료의 개발과 유지에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구술사는 더욱 자본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마추어리즘과 구별되는 구술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구술면담과정은 그리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면담자(interviewer)는 면담 내용을 기록할 것이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면담을 진행하며, 그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든지 간에 구술사자들은 미래를 위해 증언을 모았다. 역사는 이들 구술자료들을 활용하는 후대의 작가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한 관점은 구술사 제3세대 학자들 내부로부터 도전 받게 되었다. 저명한 구술사가인 로날드 그렐(Ronald Grele), 폴 톰슨(Paul Thompson), 알레산드로 포르텔리(Alessandro Portelli) 등 일군의 구술사가들에게 구술면담은 특정한 언어적 관습, 문화적 상호작용, 그리고 당대의 흐름 속에서, 면담자와 구술자(narrator)가 함께 협력한 역사적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터뷰는 단순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역사를 재현하는 것으로 심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현한 제4세대 구술사자들은 카세트 레코더, 비디오 카메라, 컴퓨터 등에 매우 익숙한 세대였다. 이들은 이론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았으며 구술사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점차 구술면담에 있어서 면담자(연구자)가 아닌 구술자의 중심적 역할 수행에 놓여졌다. 또한 제4세대 구술사들은 역사해석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소위 객관적, 과학적이라 불리던 기존 역사학의 역사구성(방식)의 해체 등으로까지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구술사 진영에는 구술사는 '전통적인 역사연구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입장에서부터 '새로운 대안적 역사학'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입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

3) 구술사의 방법론적 타당성

구술사 방법론은 모호한가? 구술사에서 논의되는 것은 감정을 자극하는 개인적

이야기들의 문학적 재구성에 불과한가? 구술사로 재구성한 역사는 부정확하고 일부 개인들의 특수한 경험담에 그치고 말 것인가? 이런 질문들로부터 구술사 연구가 학술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구술사 방법론의 타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구술사의 경우 전통적인 ‘문헌사’ 진영이 제기하는 수많은 비판들에 우선적으로 대답할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 장은 바로 그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한 시도이다.

(1) 구술성(orality)

구술사를 다른 역사연구와 구별하는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자료의 형태성’이다. 구술사는 무엇보다도 ‘구술자료’(oral source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연구인 것이다. 자료의 형태성은 그 자료가 글로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입으로 말해진 것인지를 구분하는 외형적 기준이다. 그러나 이 외형적 기준만으로 구술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술사 연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형태성 너머에 존재하는 ‘구술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미 구술사자들은 ‘역사적 사료의 가치는 자료의 형태성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즉, 자료의 형태성은 자료적 가치의 우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헌자료(document)와 구술자료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장단점을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다. 특정한 연구를 구술사 연구 ‘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구술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성은 분석적이거나 분리적인 경향을 갖는 문자성(literacy)과 구별되는 통합적인 인간의 사고방식 및 표현방식을 의미한다. 문자성이 기반하고 있는 감각은 주로 시각(視覺)으로서 이는 대상을 인식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말하고 듣는’ 감각에 근거하고 있는 구술성은 하모니, 즉 하나로 통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웅 1995, 114-116). 구술성은 억양, 고저, 강약, 휴지(休止), 속도 등 다양한 음성적 특징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인간의 내면성을 통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구술사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어떤 기록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구술성의 고유함이다. 사실 문자문화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구술성과 구술문화는 문자에 입각한 세계의 한 변종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인류가 탄생한 이래 약 3만 년에서 5만 년에 이르는 기간 중에서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6천 년 전에 불과하다. 현대인이 사용하는 “유사(有史) 이래”, “구전문학”(oral literature), 또는 “문자 이전”(preliterate) 등의 조어법(造語法)에는 현대문명의 구술문화에 대한 암묵적인 평가절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그것이 현대인의 자기 중심적 가치판단을 반복적으로 강화시켜 왔다. 특히 “유사(有史) 이래”라는 표현에는 역사는 ‘쓰기’와 연관되며, 따라서 구술로 이루어진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편견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옹 1995, 23, 255).

구술성과 문자성에 대한 연구에서 옹(Ong)은 ‘쓰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술성’을 ‘1차적 구술성’으로, 그리고 쓰기와 인쇄문화에 의존하는 새로운 구술성을 ‘2차적 구술성’로 구분하였다. 그의 기준에 따라서 구술사에서 사용하는 구술자료를 구분한다면, 우리는 ‘구술전통’을 1차적 구술성에, ‘구술증언’을 2차적 구술성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전통을 주로 다루는 분야는 아프리카나 비문자(nonliterate) 집단에 대한 역사적, 인류학적 영역이다. 비문자 집단과 달리, 문자성이 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문자문화 속에서 2차적 구술성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대 사회의 많은 영역이 새로운 구술성에 기반하여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구술성은 주로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그 밖의 전자 장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있다(옹 1995, 22).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화상전화, TV 토론, 멀티미디어 등의 발달은 구술성의 중요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현대의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중요한 결정은 세부적인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다양한 토론들과, 전화 통화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일수록 수십 년간의 ‘공개금지’ 원칙에 묶여있기 일수이다. 반대로 공개된 문서들은 그 절대적인 양에서 엄청나기 때문에 그 문서들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점차 고된 노동과도 같은 작업이 되고 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쏟아져 나오는 공식문서의 절대적 수량에 비해서 실제 문서보관소에 보존되는 기록의 양은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Kavanagh 1991, 484-485). 기록이 넘쳐날수록 ‘구술증언’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문자사회’라고 과도하게 오해된 현대 사회에서 ‘구술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근대 이후 간과되어 온 사회 내의 구술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 그 차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에 있다. 구술성에 대한 학문적 탐험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우리가 만족할 만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2) 구술자료의 특징: 단점이 장점이 되는 역설

연구자는 반드시 자신의 연구자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 연구주제와 관련되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은 그 형태성과 성격 등에 의해 분류되어야 하며, 각 범주에 따라 갖게 되는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서자료의 경우에도 정부기록과 검찰기록, 또는 법원기록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사회운동단체의 자료집이나 홍보물, 그리고 조직참가자들의 수기, 소설 등도 마찬가지이다. 문서자료가 아닌 구술자료나 이미지자료는 또 다른 분석기법 없이는 제대로 해석될 수 없다. 구술사 연구에서는 매우 다양한 연구자료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자료분석법에 대한 민감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제기된다. 여기서는 우선 '구술자료' 그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 범주별로 살펴볼 것이다. 보통 구술사연구의 개론서들에서는 주관성, 개별성, 부정확성 등의 성격을 한꺼번에 지적하고 있어서 방법론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흠스봄이 지적하고 있듯이, 구술사 연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구술사 연구의 신뢰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① 부정확성 - 구술자 기억력의 한계 문제

'부정확성'은 '정확성'의 반대어이다. 즉 기록과 달리 기억은 기억력이라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 역사학과 사회과학에서 구술자료는 사료적 가치를 대부분 인정받지 못해왔다. 구술사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구술자료의 부정확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헌자료 역시 부정확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역사란 무엇인가』로 널리 알려진 카아(E.H. Carr)는 역사 연구에서의 '선택'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로부터 문서자료에 대한 반성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카아에 따르면 독일 외상을 지냈던 슈트레제만은 사망하면서(1929년) 약 300

상자 정도의 공식, 비공식 서류를 남겼다고 한다. 그의 비서가 이 문서를 『슈트레제만의 유산』이라는 세 권의 책으로 편집하여 총 1,800쪽 분량으로 정리하였다고 한다. 이 책이 영국에서 출간될 때에는 다시 3분의 1 분량으로 축소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카이는 ‘만약 전쟁을 거치면서 원래의 문서들이 소실되었더라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남은 축소판을 통해서 슈트레제만과 당시 독일의 외교관계를 파악해야 했을 것’이라면서 문서자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류방관 1998, 37). 한편, 한국에 구술사를 체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김기석 교수(서울대 교육학과)는 해방 공간에서 남북한 교육개혁에 대한 문서들을 수집했던 경험을 통해 문헌자료의 절대성을 비판한다. 그는 미국에서 미 점령군인 제24군 기록(RG335)와 소위 ‘노획문서’로 알려진 관련 기록(RG242)을 광범위하게 접하였다. 그리고 그 문서들은 미군정 학무국의 내부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들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당시 미군정 학무국 관리로 근무한 음악전문가를 만나 구술을 받는 기회가 생겼다. 김기석 교수가 구술면담을 하면서 당시 학무국 기록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아해 했다고 한다. 그는 그 시기 기록을 생산한 장본인이었지만, 자신이나 동료 관리가 남긴 ‘공적’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면담 당시에도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김기석·이향규 1998, 5). 무엇보다 ‘문서자료 절대화 비판’의 백미(白眉)는 문서자료의 기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다. 구술자료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방법론적으로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은, 현재 많은 역사가들이 인용하는 수많은 문서자료들 자체는 원래 구술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과거의 연대기나 법정기록, 사회조사기록, 신문기사 등은 대부분 구술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Tosh 2000, 2).

결국 구술자료의 부정확성은 문서자료의 부정확성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부정확성’은 구술자료의 단점 중에서 가장 쉽게 반박될 수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³⁾

3) 구체적인 연구과정에서도 부정확성의 문제가 늘 발생한다. 구술사의 경우 녹취문을 만들고, 그것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흡스봄은 “녹음기 덕분에 수많은 구술사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녹음된 기록 대부분은 수고를 보상받을 정도로 충분히 흥미롭거나 충분한 감정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수

② 주관성 - 구술자의 해석과 평가 개입 문제

‘주관성’은 ‘객관성’의 반대어이다. 구술사에 회의적인 학자들은 구술자료가 구술자 개인의 해석과 평가에 의해 사료로서의 진실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술자가 과거의 경험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해 냈다고 해도 만약 그 내용이 구술자의 ‘주관적’ 판단과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면 역사적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의 세계관, 시점, 관계 등에 의해서 매우 다른 해석과 평가가 내려진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확성’의 문제에서처럼, 문서자료가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술자료의 주관성 문제 역시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다만 구술사가들은 구술자료의 주관성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탈리아의 구술사가인 포르텔리(Portelli)는 구술자료에 있어서의 신뢰성이 ‘또 다른 신뢰성(a different credibility)’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술증언의 중요성은 그것이 사실에 근접했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점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잘못된’ 구술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Portelli 1998, 68)고 주장한다. 포르텔리는 ‘왜곡된 기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집단적 기억으로서의 역사’가 왜곡되는 현상의 새로운 의미를 밝혔다. 그는 1949년 3월 17일 이탈리아 정부의 NATO 가입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죽은 한 철강노동자 트라스툴리(Luigi Trastulli)에 대한 기억을 1980년대 초 시점에서 재구성하였다. 그의 사인(死因)은 당시에도 정확히 밝혀진 바 없으며 다만 경찰차량이 시위대를 덮쳤다는 것과, 여러 번의 발포가 있었다는 정황만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의 노동자들은 트라스툴리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설(異說)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종합해보니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어 버렸다. 노동자들의 기억에 따르면, 트라스툴리는 1952년에서 1953년 사이에 있었던 대규모 해고사태와 그에 대응하는 투쟁 가운데 죽음을

고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아는 만큼 기억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알아서 제거할 때까지는 구술사를 결코 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홉스봄 2002, 321).

맞이하였고, 그는 경찰의 총을 맞고 공장 벽에 기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다는 것이다. 구술사가인 포르텔리는 노동자들이 “다양한 설화, 상징, 전설 그리고 상상적 재구성에 입각하여 집단적 기억과 상상을 만들어” 냈다고 분석하면서, ‘사실과 기억의 불일치’의 적극적 의미를 설파했다.

사실과 기억간의 불일치는 역사기록으로서 구술자료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높여준다. (...) 그 불일치는 중요한 사건들과 역사 일반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시도 속에서 기억과 상상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작용 때문에 만들어진다. (...) 사건 그 자체를 넘어, 이러한 구술 서사들(oral narratives)로 인해 확인해지는 진정한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기억 그 자체이다(Portelli 1991, 26).

여기서 논점은 상당히 복잡해진다. 구술사의 이론적 쟁점은 부정확성과 주관성에서 ‘기억과 역사의 관계’라는 차원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구술사가들은 구술자료의 주관적 그리고 구술적 본성에 대한 깊은 탐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억의 불완전성을 단순한 오류나 왜곡이 아닌 ‘역사적 해석과 재구성을 위한 재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들에게서 “기억은 사실들의 수동적인 저장고가 아니라, 의미들이 창조되는 역동적 과정”인 것이다(Thomson, A. 1998, 585). 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의는 이제 ‘기억과 역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③ 특수성 또는 개별성 - 개인기억의 대표성 문제

‘특수성 또는 개별성’은 ‘보편성 또는 일반성’의 반대어이다. 구술사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구술사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특수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보다 집합적인 자료들의 신뢰성을 고수한다. 우리가 흔히 ‘집합적 데이터’라고 부르는 통계적 수치나 사회조사보고서들이 너무도 쉽게 신뢰성의 검색대를 무사통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최소한 몇몇 영역에서는, 나아가 기존 사회과학이 간과해왔던 수많은 영역들 속에서, 집합적 데이터의 신뢰성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을 통해 사회사가들과 구술사가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된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P. 톰슨은 1800년대를 전후한 영국 경제에 대한 통계 자료를 비판하면서, 몇몇 지방통계를 이용해 만들어진 전국 통계가 제시하는 ‘전국 평균치’로부터 실제 노동인구의 60% 가량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주에 살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통계숫자는 생활수준의 양적인 측면을 설명해줄 수는 있지만 질적인 측면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예를 들어 몇몇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차, 설탕, 고기, 비누의 1인당 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간의 경험은 ‘질적인 하락’이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톰슨, E.P. 2000, 286, 289, 293).

또한 전순옥은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에서 정부통계나 각종 조사통계의 한계들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부가 발행하는 『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1973년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18일이며 노동일수는 25일로 나와 있다. 이를 일단위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7시간이 된다. 이것이 1977년에는 9.2시간, 1978년에는 10시간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통계에 근거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순옥은 이러한 정부통계의 신뢰성을 부인한다. 1970년 당시 평화시장에 대한 노동부의 실태조사 보고서가 너무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노동부의 당시 발표내용에 따르면, 평화시장, 통일시장, 동화시장 전체에 운영중인 공장의 숫자는 428개였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총수는 약 7,600명이었다.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치는 공장들이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16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 전체일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세 시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세 시장 안에는 860개에 달하는 공장이 가동 중이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고용인 총수는 2만 6,800명으로 공식적인 집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숫자다. 법정 최고인원인 공장 당 16명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고용인들의 평균 숫자는 법률이 정한 최고 인원의 약 2배였다(전순옥 2004, 131).

전국적 또는 시·도 수준에서 취합되는 집합자료의 신뢰성의 범위는 바로 그러한 거시적 수준에 국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순옥은 당시 평화시장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에서 구술사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전순옥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받은 임금에 대한 기록은 당시 정부 통계수지나 학술서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서술하려 한다. 그들만이 매달 말 자신이 받은 금액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받은 월급으로 구매한 자료가 결국 그들의 수입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전순옥 2004, 164)

결국 구술자료의 특수성 또는 개별성이란 문제는 집합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나아가 집합자료가 전혀 다루지 못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접근하는 유효하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구술사가들의 주장인 것이다.

④ 통시성(通時性) - 구술자료의 ‘1차성’ 문제

‘통시성’은 ‘공시성’(共時性)의 반대어이다. 역사적 사료의 공시적 성격은 사료가 ‘1차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료가 사건이 발생한 당시를 잘 보존하고 있다면, 역사가는 고대 도시의 손상되지 않은 유적을 발견한 고고학자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구술자료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료의 공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매일 일기를 쓰듯, 그날 그날에 일어난 일들과 겪은 일들을 녹음하여 남겨두었다가 타임캡슐에 담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하지만 구술자료는 ‘통시성’을 갖는다. 여기서 ‘통시성’이라는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이다. 첫째는 이야기가 ‘시간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술자료에 문학적 성격, 즉 서사(narrative)적 성격을 부여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둘째는 과거 사건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그 후의 사건과 체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통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구술사가들은 매우 정교한 인터뷰 기법을 개발하거나 사회학적 ‘샘플링’ 방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구술사가인 폴 톰슨(P. Thompson)도 그의 저서 『에드워드 시대의 사람들』에서 할당표집 방법으로 구술대상을 선정하고 500여 회의 면접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도 역시 보다 근원적인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의 '에드워드 시대 사람들'은 계속 생존해 있기 때문에, 결국 '조오지 시대 사람들'이기도 했고, 이제는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다(Koss, Stephen 1975, Tosh 2000, 7에서 재인용).

구술자료가 아무리 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거와의 직접적인 조우는 될 수 없으며, 구술자가 과거의 사건 이후에 경험한 다양한 체험들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의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목소리이기도 하다”(Tosh 2000, 7).

결국 구술자료는 미래의 '1차 자료'일 수는 있어도, 과거에 대한 '1차 자료'일 수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연구의 단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전순옥의 지적에서처럼 구술자료는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하고 유일한 '1차 자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억의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사회심리학 및 노인학 등 인간의 기억과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의 실험 또는 연구 성과들은 '기억의 정확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을 만 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인간의 기억이 선별적이고, 시간에 따라 쇠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술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은 시간과 독립적이며 그 경우 기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생생하다는 것이다(김기석·이향규 1998, 10). 이 말은 구술자료 전체는 '공시성'보다는 '통시성'을 그리고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들에 대하여서는 '가장 정확한 1차 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쌍방향성(interactivity) 또는 가변성 - 면담자의 영향력 문제

'쌍방향성 또는 가변성'은 '일방향성 또는 불변성'의 반대어이다. 문헌자료는 문서고나 도서관 등에서 잘 보존만 된다면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발달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서 텍스트와 영상 및 이미지 자료들의 보존기간은 거의 영구적으로 확장되었다. 한번 문서화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술자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구술자료의 '가변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구술자의 경험과 나이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과 구술내용의

선택 및 의미화, 나아가서 사건의 진술내용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구술자와 면담자와의 관계 및 구술상황에 따라서 구술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대학원생은 이주노동자를 인터뷰하면서 ‘한국에 오기 전엔 장래희망이 무엇 이었는가’ 라고 물었다. 그는 ‘그냥 특별한 게 없었다’ 고 답했다. 그러나 이 면접자는 다른 영상다큐멘터리에서 바로 그 구술자의 전혀 다른 이야기길 들어야 했다. 카메라를 보면서 동일한 면접자는 ‘장래희망은 선생님이였다’ 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구술자료의 가변적 성격은 지금까지 논의한 네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이기도하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되는 ‘면담자의 영향력 문제’는 구술자료의 가변성에서 고유한 범주를 구성한다.

구술자료는 보통 대화를 통해서 형성된다.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자료는 면담자와 구술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물질화 된다. 구술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구술적 연행(performance)의 경우, 구술은 보다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띤다. 듣는 이 없이 계속되는 구술이란 상상하기 어렵다. 즉 구술자료는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것은 문서자료의 ‘일방향성’ 과 반대되는 것이다. 문서자료들은 담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줄 뿐, 상대방과 교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방향성’ 을 가지고 있다. 아직 문자성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문서의 일방향성은 매우 심각한 결함으로 간주되었다. 문자가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 문서보다 증언이 훨씬 강한 신뢰성을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러한 증언에 대해서는 고쳐 물을 수도 있고 반론을 제기시킬 수 있는데 반하여 텍스트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 이었다(웅 1995, 149). 질적연구방법에서 인터뷰가 가진 장점은 바로 ‘심층적 소통’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언제든지 구술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술전략을 수립하여 구술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구술자의 잘못된 기억이나, 거짓 진술 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서자료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의 내밀한 관계와 같은 ‘고급 정보’ 를 얻어 낼 수도 있다. 엉뚱한 비교이겠지만, 국회 청문회의 장면이나, 형사들의 심문(審問)과정 또한 이러한 쌍방향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구술사가들의 인터뷰는 ‘강압적 심문’ 이어서는 안 된다. 구술사에서는 구술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구술자와 면담자와의 신뢰(rapport)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거짓말탐지기를 작동시키며 이뤄지는 구술 인터뷰는 구술사가 아니다. 그것은 구술사가

가장 중시하는 구술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구술자료의 쌍방향성은 구술사가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술자료의 취약점이기도 하다. 구술전통에서 구술되는 내용은 종종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구술증언의 내용 역시 '면담자가 누구였느냐', '구술자와 면담자의 관계가 호의적이었느냐' 등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자의 주도성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면접자의 진실성과 태도, 그리고 꼼꼼한 준비의 중요성 역시 증대된다.

3. 기억과 역사의 관계 - 구술사의 매력

앞서 인용한 대로, 포르텔리(Portelli)는 “진정한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기억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역사적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카아(E.H. Carr)가 제시했던 개념이다. 카아는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에 의해 해석된 사실이라고 말한다.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가의 능동적 해석의 결과인 것이다.

카아는 과거, 사료(史料), 그리고 역사를 구분한다. ‘과거의 사실’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그 자체이고, ‘사료적 사실’이란 일종의 ‘과거에 대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가 역사를 씬으로 해서 성립하는 사실이다. 과거의 사실이 사료적 사실로 온전히 전환되지 못하는 것처럼, 역사가들은 과거에 대한 사실들 속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선별하여 하나의 일관된 역사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는 “흔히 사실은 스스로를 이야기한다고들 말한다. 이것은 물론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만 이야기한다. 어떤 사실에게 발언권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역사가이다”라고 주장했다(카아 1977, 22, 133). 기존 역사학계의 논의에 구술사가들은 ‘기억’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논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과거’가 존재하는 방식을 ‘역사’라고 하였을 때, 그리고 그 역사가 ‘문헌’ 사료적 사실들을 가지고 재구성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구술’ 사료적 사실들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재구성되는 역사란 어

떻게 변모할 것인가”의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구술사 연구, 특히 생애사(또는 생애 이야기)연구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심층면접이 그러하듯이, 구술사에서도 생애사(또는 생애 이야기)는 시계열적 연속성을 갖는 자료로 구성된다. 그리고 구술자의 구술내용은 전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분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구술자의 ‘말의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이야기의 조직 원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이것을 서사적 접근이라고 부른다. 구술자료에 대한 서사적 접근은 구술자가 어떤 말을 할 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즉 이야기의 조직원리 혹은 구성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 때 구술자의 삶, 경험,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점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삶(a life as lived)이 실제로 화자에게 일어난 삶의 세계라면, 경험(a life as experienced)은 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화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구성하는 삶의 세계이고, 삶의 이야기(a life as told)는 화자의 경험에 대한 선택적 구성물의 세계이다(Denzin, N.K. 1989, 이재인 2004, 16에서 재인용).

여기서 카아가 말한 ‘역사적 사실’과 덴진(Denzin)이 명명한 ‘삶의 이야기’는 거의 동일한 차원으로 여겨진다. 다만 구술사에서 다루는 삶의 이야기는 개인적 역사, 즉 개인사이고 역사학에서 다루는 역사적 사실은 집단과 공동체의 역사, 즉 집단사라는 점에서 구별될 뿐이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 ⁴⁾	집단사
삶: a life as lived	과거: 과거의 사실
경험: a life as experienced	사료: 사료적 사실, 과거에 대한 사실
삶의 이야기: a life as told	역사: 역사적 사실

구술사는 구술자료의 사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기존 역사 연구에 새로운 사료를 추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효과로 기존 역사 연구의

4) 개인사란 생애사(life history)라고 부를 수 있다. 생애사에 대한 덴진의 구분법과 약간 다르게, 이희영(2005)은 ‘살았던 생애사’ (a life as lived), ‘이야기된 생애사’ (a life as told) 그리고 ‘체험된 생애사’ (a life as experienced)로 분석 수준을 구분하는 Fischer-Rosenthal(1996)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

근본적 전제들 자체에 도전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기억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다. 구술사에서 기억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구술증언의 토대가 '기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사회적 담론, 즉 '역사적 담론'을 역사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각 개인에게 '기억'의 형태로, '기억'을 매개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집단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집단과 개인, 즉 사회에서 떨어진 '객관성의 세계'에 박제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들'이라는 방식의 역사에 대한 고정관념은 근본적으로 거부되었다. 폴 톰슨(P. Thompson)은 그의 저서 『과거의 목소리 구술사』 제1장에서 '역사와 공동체'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목적에 의존한다"면서, 특히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역사가 부각되고, 또한 소위 '부끄러운 역사'가 침묵 당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에게 "역사의 초점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규정된다. 지금까지 역사가 주로 왕조 중심의 정치사였던 것은 바로 (특정 사관을 가진) 역사사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동사(勞動史)에 있어서도 역사는 "보통 기록들과 자신들의 역사를 써주기를 의뢰할 수 있었던, 더 크고 더 성공적인 조직들"의 역사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역사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발본적인 의문을 던지면서 역사 서술의 범위 그 자체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술사는 사람들 속에서 세워지는(around people) 역사이다. (...) 구술사는 지도자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인민의 대다수 속에서 영웅을 허락한다. (...) 그것은 사회 계급 간, 세대 간의 접촉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Thompson, P. 1978, 2, 6, 8, 15, 21).

이제 구술사 연구의 핵심적 테마로 자리 잡은 기억은 보다 정교한 논의와 논쟁들로 나아갈 것이다. 주로 개인적인 기억과 구술증언에 집중해 온 구술사가들은 전통적 역사학과의 논쟁 속에서 '집단적 기억'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억에 대한 구술사적 이론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한 구술사 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기억의 사회적 생산은 공적인 재현과 사적인 기억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그들은 '공적인 재현'으로서의 '역사의 지배적 재현'은 가장 이데올로기적이고 신화적이 것에 가까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국가의 역사 혹은 민족의 역사 속에서 잊혀지거나 그 의미를 박탈당했던 기억들, 기록되지 못했고, 기

역되지 못했던 역사들, 그리고 침묵' 되어진' 역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Popular Memory Group 1982, 210)은 구술사가들의 대체로 공감하는 구술사 연구의 역사철학적 태도이다.

집단적 기억에 대한 중요한, 그러나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사례를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정체성은 주로 민주노조운동 참여자들의 정체성으로 대표되어 왔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전태일 열사 정신의 역사화 또는 육화(incarnation)로서 해석되고 있다. 그것은 '집단적 열사'의 위상을 획득하였다. '열사'는 숭고한 뜻을 좇다가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영웅, 또는 순교자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통해 독재정권 몰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결국 폭력적 방식으로 해체되어갔던 비운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집단적 열사'의 위상은 역사적 해석이나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전태일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기억'을 살펴보자. 그 이미지는 근로기준법 책을 한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든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외치고 분신하여 그 자리에서 죽어 가는 이미지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있지 않았고, 그에게 불을 붙인 것은 그의 친구였으며, 그 도구는 성냥이었다. 불타는 그의 몸에 다른 친구가 근로기준법 책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당일 저녁 병원에서였다(조영래 1991, 294 이하).

최근 기억에 대한 광범위한 인문학적 연구를 수행한 독일의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의 논의는 주목받을 만 하다. 그녀는 기억의 다양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치적 측면을 놓치지 않았다. 즉 "개인에게서는 기억의 과정들이 대부분 반사적으로 진행되고 심리적 기제의 일반적 범칙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 집단적, 제도적인 영역에서는 이 과정들이 의도적인 기억 내지는 망각의 정치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스만은 "생생하고 개인적인 기억에서 인위적이고 문화적인 기억으로의 이행은 기억의 왜곡, 축소, 도구화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축소와 강화는 공공의 비판, 성찰, 토론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아스만 2003, 16) 그녀에 따르면 현대에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 문화적 경계가 무너지

고 다시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기억과 정체성의 문제가 다시 현실성 있는 주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정체성이란 '자신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러한 자신의 역사를 담론적으로 중재한 정치적 해석'이다. 공동체나 개인에게, 우리는 공동으로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아스만 2003, 78).⁵⁾

구술사 방법론이 가장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연구분야는 역사학과 사회과학이 만나는 분야이다. 그리고 구술사는 구술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현대 사회현상의 분석에 적절하다. 물론 꾸준히 구술자료가 축적된다면, 미래 사회과학자들도 구술사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술사 방법론은 연구대상에 대한 문헌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된다.

표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구술사는 일반적인 인터뷰와 심층면접과 형식적으로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면담조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자의 의식적 조사활동이 전제되어야 구술사적 연구, '구술사다운' 연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구술사 연구는 (1) 연구자와 구술자의 공동작업을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2) 구술면담은 구술자를 중심으로 하며, 특히 연구주제는 기존의 역사구성에서 제외되었던 수많은 민중들에 대해 열려 있다. 그리고 구술의 내용은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건들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관적 의미화 및 그 서사구조 등에까지 나아간다. (3) 따라서 구술사 연구를 통해 확보된 구술자료는 대안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진실된 정체성을 탐구하는 데에 또한 효과적이다. (4) 구술자료는 매우 주관성이 강하며, 구술자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많이 담아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또한 면담자는 구술자의 '이야기하기'를 도우며 '질문하기' 보다는 '듣기'에

5) '기억과 역사', 그리고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박진, "집합기억의 형성에 관한 일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0)과 한건수, "경합하는 역사: 사회적 기억과 차이의 정치학"(한국문화인류학 35-2, 2002), 나당 바수벨,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서론"(윤택림 역, 『역사연구』 제9호, 2001),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2005, 휴머니스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표 1.

	(일반)인터뷰	심층면접	(협의의)구술사
구술면담	기자, 작가, 연구자 등이 인터뷰를 주도	연구자 주도 속에서 구술자 존중	연구자와 구 술자의 공동 작업
면담의 성격	강함 ← --- · 면담자 중심 · 일방향성 · 엘리트 중심 · 사건 중심	중간 ← --- → 수준	--- → 강함 · 구술자 중심 · 쌍방향성 · 민중 중심 · 체험 중심
구술자료 활용방식	작품의 재료 역사적 사료	분석적 자료 질적연구 대상	이야기된 사료 (대안적 역사)
구술자료의 특성	강함 ← --- · 객관성 · 사실의 확인 · '묻기' 중심 · 문자성(literacy)	중간 ← --- → 수준	--- → 강함 · 주관성 · 내면적 접근 · '듣기' 중심 · 구술성(orality)
(연구) 결과물	다큐멘터리 르뽀, 소설, 사료집 등	전통적 역사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 일반	(다양하게 활용 가능)

노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술내용 속에 풍부한 '구술성'이 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결론: '연결됨'의 정치학

구술사와 관련된 모든 진지한 논의는 결국 '손상된 것의 회복'으로 모아지는 듯 하다. 구술사는 문헌 중심의 역사연구가 간과했던 역사의 주관적 의미와 미시적 측면에 대한 '회복'을 가능케 한다. 구술사가 기존의 거시사, 구조사를 대체하는 '대안적 사회과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구술사를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기존 역사의 일면성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종종 구술사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역사학의 문헌사료에 대한 맹신(盲信) 비판

은 종종 구술자료 그 자체가 뭔가 대안적인 것을 줄 수 있다는 과도한 희망으로 대체된다. 기존 역사의 승자(勝者)중심적 역사관에 대한 비판은 구술사 그 자체가 민중중심의 대안적 역사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근거가 약한 바람으로 쉽게 바뀌곤 한다. 모든 역사적 담론은 사실 해석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허구'라는 해체론적 주장으로부터 구술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자유로운 해석가능성을 성급히 선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술사가 오직 정치적 엘리트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역사가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술사는 얼마든지 민중을 배반해 왔으며 오히려 여성사, 노동사라는 민중사적 영역에서조차도 지도부 및 조직 중심의 승리사에 머물렀던 경험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절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치열하고 체계적인 고민과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연구자의 '해체론'으로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연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뿐이라는 점은 구술사 논의 속에서도 재확인되어야 한다.

현대 한국정치사 연구에도 구술사 방법론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한국정치사는 1차적 사료의 부족이 매우 심각한 연구분야이다. 해방 이후 한국정치와 관련된 자료는 해외로 유출되었고,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또한 전쟁 이후의 한국정치사 관련 자료는 정치적 검열을 받았거나, 자료 자체가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혜경 1999). 예를 들어 영국런던정경대학(LSE)은 주요 정치인물에 대한 구술자료의 체계적 수집을 위해서 1980년 '영국정치행정사구술사고(The British Oral Archive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History)'를 설립한 바 있다(Tosh 2000, 3). 한편 미시적 정치학의 한 분야로서 전기(傳記)정치학은 아직 미흡하지만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신복룡 1999). 『스탈린평전』을 쓴 아이작 도이처(Isaac Deutcher)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이 용어는 아직은 학문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 상태이자, 그러나 전기(傳記)정치학은 정치(사)학자가 정치가의 일대기를 통하여 정치학적 의미를 도출하는 학문으로써, 이 역시 헤로도투즈, 칼라힐, 도이처, 벌린 등의 유구한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역사학과 문학과의 중첩분야로서, 전기(傳記)정치학은 학제적 연구분야의 하나로서 정치학적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술사 방법론은 기존의 정치학적 연구 대상을 확장시킬 수 있다. 구술사는 기존의 역사와 정치권력에서부터 밀려나 있던 '보통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새

로운 방법론이다. 이제는 정치가, 행정가, 시민운동가, 노조활동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평범한 관료, 그리고 보통 노동자와 여성 및 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연령의 사람들이 구체적인 정치적 연구의 대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연결됨’(connectedness)의 개념은 구술사 전반의 이론적 기여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Tosh 2000, 4). 첫째, 구술사는 거시적 추상성과 미시적 구체성의 연결됨을 보여준다. 구술사는 식민지통치, 전쟁의 승리, 군부독재, 민주화운동 등의 추상적인 정치적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고 또 개인들을 그것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구체적인 삶들과 경험들이 다시 추상적인 정치적, 사회적 가치들로 합류해 가는 메커니즘을 추적할 수 있다. 둘째, 구술사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됨을 이해하게 한다. 구술사가는 ‘현장연구를 수행하는 역사가’이다. 우리는 생존하는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과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서의 살아있는 역사를 구성해 갈 수 있다. 구술사는 과거의 시점에 고정된 사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해석을 문제 삼으며 그 기억이 역동적으로 해석되고 창조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다양한 정치집단 사이의 투쟁 속에서 결국 “역사와 정치의 관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된다(윤택림 1994, 284-285). 셋째, 구술사는 정치현상의 층위간의 연결됨을 드러낸다. 구술사는 권력의 중앙, 상층의 역사가 보지 못하는 지방의 역사, 민중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서 개인, 지방, 국가, 지역, 세계로 구성되는 사회적 층위, ‘역사적 지층의 결’을 드러나게 해 준다. 그 수준들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는 사회의 거시적 관점에 섬세함을 제공하며 미시적 시각의 협소함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곽차섭 (2002), “포스트모던 시대의 역사학을 위하여: 대화와 제언,” 김기봉 외.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 구해근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 김귀옥·윤충로 (2007),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기석·이향규 (1998), “口述史: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 연구노트》 9. 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
- 김운태 (1978), “한국 정치학 연구의 발전과 현황: 정치사,” 《한국정치학회보》 21(2).
- 김원 (2005),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 김호진 (1995), “한국 현대정치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 한국정치학회. 《한국현대정치사》. 법문사.
- 남신동 (2002), “구술사(口述史)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팀 콜로퀴움 발표문(11월 17일).
- 류방란 (1998), “구술사연구의 방법과 활용,” 《한국교육》 25(2).
- 문승익 (1979), “한국 정치학의 정립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13.
- _____ (1999), 《자아준거적 정치학》. 오름.
- 민병태 (1969), “우리 정치학계의 현시점,” 《한국정치학회보》 3.
- 손호철 (1997), “한국정치: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현대한국정치》. (주)사회평론.
- 신경림 (2003), 《질적연구 용어사전》. 현문사.
- 신복룡 (1997), “미국에 소장된 한국현대사 자료수집의 문제점,”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보존》 10.
- _____ (1999), “傳記政治學의 試論,” 《한국의 정치사상가: 전기정치학을 위한 시론》. 서울: 집문당.
- _____ (2001), “한국정치사학사,” 한국정치학회 김유남(편). 《한국정치학 50년: 정치사상과 최근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유경순 (2007), 《아름다운 연대 — 들불처럼 타오른 1985년 구로동맹파업》. 메이데이.
- 유경순 편 (2007),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 — 구로동맹파업의 주역들, 삶을 말하다》. 메이데이.
- 육영수 (2002), “포스트모던 시대의 역사와 역사학: 쟁점과 전망,” 김기봉 외.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 윤택림 (1994),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 _____ (1999), “구술자료의 해석과 텍스트화,”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제6차 워크숍 발표논문집》.
- _____ (2005),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 윤택림 · 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 이용기 (2002),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봄호.
- 이재성 (2004),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묻는다 —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서평,” 《경제와 사회》 여름호.
- 이재성 · 김혜영 (2005), “당신에게 나, 은혜입은 거 없어! —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서평,” 《진보평론》 제26호.
- 이재인 (2004), “한국 기혼여성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서사유형과 결혼생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정복 (1999), “한국정치학의 변화와 발전방향,”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8 · 9호.
- 이종구 외 (2004a),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자 정체성》. 한울.
- _____ (2004b),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한울.
- _____ (2005),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경험과 생활세계》. 한울.
- _____ (2006a),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문화와 정체성》. 한울.
- _____ (2006b), 《1960~70년대 한국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
- 이희영 (2004), “이주노동자의 생애체험과 사회운동: 독일로간 한국인 1세대의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_____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별쇄본.
- _____ (2006), “체험된 폭력과 세대 간의 소통,”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한국과 독일 일상사의 새로운 만남》. 책과 함께.
- 전순옥 (2004),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 조영래 (1991), 《진태일평전》. 돌베개.
- 조주은 (2004), 《현대가족이야기》. 이가서.
- 정경원 (2003), “노동자 자기 역사 쓰기,” 《역사학연구소 창립 15주년 노동운동사 심포지엄 자료집》. 역사학연구소.
- 정혜경 (1999), “한국 근현대사 구술자료의 간행현황과 사료가치,” 《역사와 현실》 33.

-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03), “국내외 구술사 연구동향,” 《구술사 이론·방법 워크샵 자료집》. 서울 대학교 한국교육사고.
- 조찬래 (1993), “한국정치사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김계수 외. 《한국정치연구의 대상과 방법》. 서울:한울.
- _____ (2001), “자아준거적 한국정치학의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정치학회 김유남 (편). 《한국정치학 50년: 정치사상과 최근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한울아카데미.
- 차기벽 (1993), “한국정치학에 있어서 역사적 접근의 의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 정치학에 있어서의 역사적 접근의 현황과 방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논총 제 8집. 서울: 대왕사.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3), 《한국 정치학에 있어서의 역사적 접근의 현황과 방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논총 제8집. 서울: 대왕사.
- Dixon, Elizabeth and James V. Mink eds. (1967), *Oral History at Arrowhead: Proceedings of the First National Colloquium on Oral History*. New York: Oral History Association.
- Dunaway, David K. (1984), *Oral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Walnut Creek, London, New Delhi: A Division of Sage Publication, Inc..
- Easton, David (1953),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Alfred Knopf.
- Fischer-Rosenthal (1996), “Strukturelle Analyse biographischer Texte,” in Brähler, Elmar & Aadler Corinne (eds.). *Quantitative Einzelfallanalysen und qualitative Verfahren*. Gießen: Psychosozial Verlag: 147-208.
- Friedlander, Peter (1998), “Theory, method and oral history,” Perks, Robert and Alistair Thomson. *The Oral History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rele, Ronald J. (1984), “Directions for Oral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Dunaway, David K.. *Oral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Walnut Creek, London, New Delhi: A Division of Sage Publication, Inc..
- Grele, Ronald J. (1998), “Movement without aim: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oral history,” Perks, Robert and Alistair Thomson. *The Oral History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avanagh, Dennis (1991), “Why Political Science Needs History,” *Political Studies* 39(2).
- Nevins, Allen (1984), “Oral History: How and Why It was Born,” Dunaway, David K. *Oral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Walnut Creek, London, New Delhi: A Division of

- Sage Publication, Inc..
- Popular Memory Group (1992), "Popular memory: theory, politics, method," R. Johnson. et al. eds.. *Making Hior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ortelli, Alessandro (1998), "What makes oral history different," Perks, Robert and Alistair Thomson. *The Oral History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ortelli, Allesandro (1991), *The Death of Luigi Trastulli and Other Stor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Thompson, Paul (1978),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son, Alistair (1998), "Fifty Years 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Oral History,"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5(2): 581-595.
- Tosh, John (2000), "History by Word of Mouse," *The Pursuit of History*. 3rd. ed.. London: Longman.(이 연구에서 인용된 것은 영국 런던대에서 이탈리아 노동사를 전공하고 있는 오승연의 번역초안이다).
- 고프, 자크 르 (1982), 조성윤 역, "역사학의 중심은 여전히 정치사인가," 《현대 사회사이론과 역사인식》. 청하출판사.
- 아스만, 알라이다 (2003), 변학수 · 백설자 · 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 아이작, 앨런, C. (1988), 정규섭 역, 《정치학의 범위와 방법》. 대왕사.
- 벤 매년 (1994), 신경림 · 안규남(역), 《체험연구 —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동녘.
- 크베일, 스테이나 (1998), 신경림(역), 《인터뷰 — 내면을 보는 눈》. 하나의학사.
- 웅, 월터 J. (1995), 이기우, 임명진(역), 《구술문자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 코저, 루이스 A. (1978), 신용하 · 박명규 역, 《사회사상사》. 일지사.
- 톰슨, E. P. (2000), 나종일 외 역,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 홉스봄. 에릭 (2002), 강성호(역), 《역사론》. 민음사.
- 왈스, 제임스 (1995), 유병용(역), 《증언사 입문》. 서울: 한울.

Korean Political History and Oral History: A Methodological Inquiry

Lee Jae Seong*

In recent political science research trends, legal-institutional and historical approaches as research methodology have not gained enough attention for they have been categorized into traditional modes of political science research. Yet, political history, in particular, should be highlighted as it provides fundamental knowledge for studying political science. Now, we need new approaches and methodology to improve the old political history and to complement its weaknesses.

In the 3rd chapter of this article, I will give a general introduction on the definition of oral history and controversy concerning its validity as a politic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Currently, there appeared a large volume of research which employs oral history methodology, most of which failed to clearly describe issues related in oral history.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oral materials have not been treated in details with a clear distinction among such concepts as orality, subjectivity, inauthenticity, and representativeness. Therefore, many qualitative research fails to achieve both validity and credibility in that it is conducted without enough understandings on research materials.

Chapter 4 covers discussions on the concepts of “memory and history” in the oral history research. Oral history is not only a methodological technique, but a research paradigm by both “new research objects” and “new research materials.” It also can help a researcher better conduct a research with a new point of view on people and community

* Ph. D. Candidate in the Dep. of Political Science, SNU. Researcher in the Labor History Institute, SKHU.

as well as society and history.

“Political science with linkage” mentioned in Chapter 5 is drawn from oral history methodology and oral materials themselves. Oral history and materials have much implication to the point that they can be used to cover many research aspects ranging from individuals and groups or micro and macro explanation to daily life and culture in general as well as human consciousness and social structures. In a way, no meaningful research of oral history is possible without researcher’s clear self-consciousness on research topics.

Key words: oral history, oralit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collective memory, oral tradition, oral testimony